

'새미르통신' | '새미르'는 '용화회상'과 '미륵'을 뜻하는, 전법성지 '신용동'의 '신용(新龍)'에 대한 순우리말 표기이고, '통신(通信)'은 초기 교단의 소통을 담당했던 불법연구회 기관지 '월간통신'에서 모셔왔습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전화의 조건 | 원불교정책연구소 환경분석분과에서는 출기교역자의 사회흐름과 교단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새미르통신'을 발행합니다. 본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범위의 시사적 주제들로 구성되며, 1~2개월 주기로 교회단보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兔)선생의 순결함과 밝은 눈으로 (원기 95년 성과결산 및 96년 사업계획)



■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이하며 매년 그려하듯
이 12지(支)의 떠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
해봅니다.

• 토끼의 시(時)는 이른 새벽입니다. 오전 5시에서 7시는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원불교정책연구소가 교단혁신의 아침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남보다 먼저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토끼는 언제나 큰 귀를 오편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 늘 놀란 모습으로 경계를 합니다. 새해에도 정책연구소는 교단 구석구석에 잠복해 있는 조직의 위험요소를 포착하기 위해 귀와 눈을 더 크게 열어 놓겠습니다.

• 토끼는 온화한 이상주의자의 상징입니다. 달나라에 옥토끼가 살고 있는 모습은 선인들이 생각하던 이

상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출발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원100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꿈을 꾸며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 토끼는 평탄한 내리막길보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더 잘 올라갑니다. 정책연구소 역시 올 한해도 도전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지들의 협력 속에서 어려운 길, 힘든 길, 하지만 보람 있는 길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 원기 95년은 교단의 많은 변화가 가시화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변화들이 더욱 폭넓게 가속도를 내며 진행될 것입니다. <새미르통신> 18호에서는 지난해 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합력했던 사업들을 돌아켜보고, 더불어 새해의 사업계획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선후진 호법동지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

1. 원기 95년: 시작된 변화들

지난해 정책연구소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화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단치교(以團治教)’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자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책연구소에서는 총단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걸쳐 교회단 중심의 조직 개편 및 훈련 체계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전무출신 정체성 확립 및 개방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정책 세미나 · 의견조사 · 모임공부 등의 일상적 연구 활동 외에 정책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구자치제 실시

- 제111회 정기원의회(95.10.14)에서 서울 · 부산 · 대전충남 교구에 대한 교구법인 분리 및 교구 고유목적 교화사업용 부동산 이양을 승인함으로써 교단의 숙원이었던 교구자치제가 본격화됨.
- 해당 교구는 각기 법인설립을 통해 재산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사권 · 교화권 · 행정권 등을 순차적으로 이양 받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구 자치를 실현하게 됨.
- 교구자치제의 내실화로 앞으로 교단 운영은 현장 중심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창의적 교화방안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교단 조직은 종교조직의 특성상 정신적 지도력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 ‘통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화 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자율적 성향이 증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적 성격’도 강화해야 함. ‘교구자치제’는 이 두 성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임. 교구자치제의 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화단자치제와의 연계를 진행하여 대종사님 경륜인 이단치교의 완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2. 2만 단장 훈련 실시

- 대전충남교구(예비단장훈련 4회, 중급단장훈련 10회), 경기인천교구(예비단장훈련 4회), 단장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행자 연수 4회 실시.
- 기존의 일회적 훈련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부로 진행. 중급 훈련의 경우 10 차례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엄격한 수료 프로그램을 적용.
- 15회에 걸친 시범 훈련으로 내적 완성도를 높이고, 200여명의 교무를 대상으로 지도자 과정 훈련도 실시하는 등 단장 훈련 확산을 위한 실질적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
- 경산 종법사님의 유시를 받들어 2만 단장 양성 및 교회단 배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교화대불공의 핵심적 실천과제임. 엄격한 단장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단장들이 대거 배출 되면 이단치교의 교단적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음. 즉, 재가교화단과 출가교화단의 활동이 질적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재가 · 출가 구분 없는 통합적 교단운영이 가능하게 됨.

3.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 남원지구, 군산지구, 부안지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음.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동교화 연대’를 발족,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성공적 모형 제시를 위해 노력.
- 출가교화단이 현장 교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신 제고, 안정적 인사정책, 지역 토탈교화 컨설팅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지속.
- 남원지구의 경우 의식지원, 합동법회, 법회지원, 청소년교화지원, 공부(훈련), 교화회의, 후생복지 등의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한 결과 교화력 증진, 분업화, 소통증대의 효과를 봄.
- 교화단 중심의 교단 조직 혁신은 교화침체의 원인인 공부(훈련), 의사소통,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안을 담고 있음. 교화단 공동교화제의 실현은 전무출신에게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 보장, 사회교화 프로그램 실천 역량 제고, 인사불만 해소, 정양대책 등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피교화자에게도 영세교당 유지 부담 축소, 다양한 공부 및 활동 기회 획득이라는 긍

정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가 기대됨.

4. 기간제 전무출신제 / 정무제 추진 / 자퇴자 교무 복귀 허용

- 제181회 임시수위단회(95.11.06)에서는 ‘기간제 전무출신’을 인정하는 전무출신규정 개정안을 승인. 기간제 전무출신은 기본용금을 받고, 요양·휴양·정양은 본인이 부담 하는 것이 원칙. 근무기간은 1기 6년이고, 연장 시 2기 12년까지 활동이 가능함.
- 제112회 임시원의회(95.11.22)에서는 ‘정무규칙’을 제정 승인. 정무란 교화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무의 정토로서 교당 교화에 뜻을 두어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교단의 승인을 받아 교당 교화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뜻함.
- 제112회 임시원의회(95.11.22)에서는 ‘전무출신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무가 자퇴 후 복귀희망 시 교무품과로는 지원이 안 되던 조항을 ‘자퇴 이전에 취득했던 자격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교무 자퇴자의 교무 복귀를 허용함.

- 6년 이상 예비교역자 과정을 거치고 평생 교단 직무에 봉직해야만 인정되는 기준의 전무출신 제도는 전무출신 지원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적인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나이, 복무기간, 교육기간에 제한 없이 본인의 서원과 역량에 따라 전무출신으로서 교단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개방형 출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전무출신 제도의 개방은 보다 많은 교도들의 맞춤형 출가를 촉진함으로써 교화현장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임.

5. 승좌설법의 확대 실시

- 제179회 임시수위단회(95.05.11)에서는 ‘승좌설법 제도시행에 관한 경산종법사 유시의 전’을 상정하여 결의. 경산종법사께서는 중앙총부를 비롯한 13개 교구와 중앙중도훈련원 등에 15개의 법장을 직접 하달하면서 종사 이상 법위자의 승좌설법 시대를 선언 (95.11.07).

-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종법사만 가능했던 승좌설법을 예전 정신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정식출가위에 승급한 재가·출가교도가 차별 없이 모두 법장을 칠 수 있게 된 것.

- 이는 원기 100년대를 맞이하며 우리 교단에 수많은 도인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선진님들의 염원이 담긴 결정임. 천여래 만보살이 보은의 일꾼으로 활약하는 주세교단으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 교도가 자기불공에 매진해야 함.

- 종법사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승좌설법의 개방은 단순히 교회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님. 승좌설법의 확대 실시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공부 중심의 교단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이는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임. 원불교 100년대를 힘차게 열어갈 교법의 동남풍을 우리 모두가 불려야 한다는 대종사님의 뜻을 실현하는 의미깊은 변화로 보아야 함.

6. 전무출신 급여 규정 개정

- 제112회 임시원의회(95.11.23)에서는 전무출신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균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무출신급여및후생헌금시행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함.
- 개정의 핵심은 급료를 받는 3호 전무출신을 희망하는 경우에 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급료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소정의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1호나 2호 중 선택을 해야 함.
- 다만,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위의 규정은 원기 96년 이후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운 기관에서 급료를 받기 시작하는 전무출신 중 3호를 희망하는 자부터 적용함.

- 출가교역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용금 및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 21.4%** 부정 **45.8%**로 두 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남. 특히, ‘**교단의 용금/급여 결정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0.9%만이 긍정적 답변**을 해 용금/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남. 이번 규정 개정은 전무출신에 대한 **급료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교역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음.

2. 원기 96년 정책연구소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래지향적 조직혁신 (이단치교)	출가교화 단장훈련 강화	각항단 훈련시 협의 표적집단면접	설문 조사										관련부서 협의(수사처, 교화훈련부, 역량개발교육팀 등) / 콘텐츠 개발 / LMS연계 / 원광디지털대학교 연계
	저단장 & 수위단원 선출방식 개선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개선방안 연구 • 관련부서 협의	6차 교화단 세미나 (수위단 선거)	수위단회 보고		7차 교화단 세미나 (이단치교 모형)	공청회 • 각단회 보고	총단회 협의 • 수위단회 결의			
미래지향적 교역자제도 혁신 (핵심인재양성)	출가교역자 정체성확립 & 재교육강화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4차 혁신세미나 (전무출신 정체성 & 품과 단일화)	5차 혁신세미나 (출가자 재교육 강화)	개선방안 연구 • 관련부서 협의		수위단회 보고	공청회	총단회 협의 • 수위단회 결의			
	재가교역자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교화단 큰학교” /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컨텐츠 개발(교화훈련부)					
미래지향적 복지혁신 (삶의 질 향상)	전무출신 복지향상 종합계획 수립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욕구분석 및 자원조사	6차혁신 세미나 (전무출신복지)	종합계획 수립	수위단회 보고	공청회	총단회 협의 • 수위단회 결의				
				전무출신복지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팀(전무출신복지TFT)	자체 연구 지속 진행(월1회 정기모임)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원기 96년: 또 다른 변화들

원기 100년을 앞두고 우리 교단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획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총단회를 통해 정책연구소에서는 ‘미래지향적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다음과 같은 세 범주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① 이단치교를 이루기 위한 조직 혁신 방안으로 ‘출가교화단장 훈련의 강화’ 와 ‘저단장 · 수위단원 선출방식의 개선’. ②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으로 ‘출가교역자 품과 교무로 단일화’ 와 ‘재가교역자(2만교화단장)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시스템 구축’. ③ 출가 교역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혁신 방안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원기 96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이상의 혁신 방안을 교단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단장 · 수위단원 선출 방식 개선

- 지자본위의 교단 운영을 지향하고 이단치교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가교화단의 기초단인 저단장과 교단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위단원의 선출방식을 혁신함.
- 형식적 변화에 매몰되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간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의 수렴 과정을 통해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두루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미 지난 12월 30일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 가 교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음. 교화단 중심의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임.

- 교화단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교화현장의 핵심 지도자인 저단장 선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형식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저단원들의 단장 선출 참여를 통해 자신이 속한 교화단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켜야 함. 또한, 최상위 교화단인 수위단의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교단의 일인 수위단의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

2. 2만 교화단장 양성을 위한 원격학습시스템(LMS) 구축

- 재가 단장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교화단큰학교’ / www.wonedu.or.kr)와 1차분 강의 콘텐츠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보다 편의성 높은 강의환경 제공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1월 중 개강 예정).
- 재가 단장 훈련이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학습(blended learning) 과정으로 진행됨으로써 강의 중심의 교육과 활동 중심의 교육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림.
- 온라인 교육이 정착되게 되면 재가단장 초급 · 중급 · 고급과정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출가교화단원의 교육 · 훈련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설립 추진

- 원불교학의 사회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예비교무 양성기관인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영산선학대학교에 이어 제 3의 교학 교육기관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를 활용하고자 함.(원기 97년 개설 목표)
- 원디대 원불교학 과정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처럼 재가자나 일반인들뿐 아니라 재교육을 원하는 출가교역자들에게도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열어줄 것임.
- 원디대 원불교학과는 재가교도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기존 원불교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인적 구성과는 차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것임.

-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가치 추구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은 이미 현 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개념이 되고 있음. 원디대의 개방적 원불교학 학위 과정의 개설은 평생교육 시대에 교학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회와의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단의 대외적 평판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출가교역자 품과 단일화

- 현재 교무, 도무, 덕무로 나뉘어 있는 출가교역자 품과 제도는 본래 취지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됨.
- 출가교역자 품과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호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전무출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교무 품과로의 단일화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도무나 덕무에게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 단, 희망자에 한하여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경우에 교무 품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무출신 품과제도는 본래 교단 인재 유입 방안으로서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목적달성이 미진하고 오히려 전무출신 사이의 차별적 풍토를 고착화한 측면이 있음. 교무 품과로의 전무출신 단일화는 품과 간 위화감을 없앰으로써 교단 통합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고, 보다 엄격한 출가교역자 양성 과정 운용을 통해 전무출신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대신 전무출신의 직무에 대한 유연한 관점을 도입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무 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함.

5. 전무출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 착수

- 무아봉공의 공도자에 대한 숭배와 낙원공동체 건설의 차원에서 전무출신의 ‘삶의 질 향상’은 절실히. 이를 위해 교단 차원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지난 해 11월 ‘전무출신 복지 TFT’가 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됨. 이 팀을 중심으로 올 해 동안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수행한 후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학적 · 직무적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표적집단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출가교역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경제문제 / 빈부격차 / 사가배려 / 후생복지 등의 항목에서 교역생활의 사기저하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과 낙원은 막연한 꿈으로 전락하게 됨. 따라서 출가교역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단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함. 출가교역자에게 복지적 전망이 제시되면 교역 활동 몰입, 교단통합, 우수 인력 유입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임.

- 정책연구소는 지난 한해 동안 자원과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나름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는 ‘교단혁신팀’을 중심으로 한 교정원의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의 지원, 그리고 교단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선후진, 재가·출가 동지들의 합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 동안 정책연구소에 합력해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기 96년 혁신사업의 열쇳말은 ‘미래지향’입니다. 미래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막연한 시간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과거 없는 현재를 생각할 수 없듯, 미래 역시 오늘의 문제의식과 취사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유보된 현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지향’ 이란 바로 미래의 상을 현재의 삶 속에 구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정책연구소는 올 한해의 시기적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보응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한 데 모아 집단지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감의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정책연구소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미르통신’은 출가교역자를 위한 인쇄매체입니다만 교도회장님 등 재가 요인들과 공유해도 좋을 내용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